



복음기도신문은 복음과 기도의
증인들의 믿음의 고백과 열방의
뉴스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해석해 성도를 일깨우고 열방의
중보기도자로 세우기 위해 격주
로 발행되는 신문입니다.

복음기도신문



자살, 70세 이상 남성 최다... 청소년은 20% 증가

지난해 우리나라 자살 사망자 중 70세 이상 남성이 가장 많이 자살로 생을 마감했으며, 특히 청소년들의 자살 사망자 수는 최근 3년간 2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국민 삶의 질 2022'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70세 이상 남성 자살률이 인구 10만 명당 81.8명으로 그 전년(79.5명)보다 2.3명 증가했다. 또한 30~39세 남성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33.4명, 40~49세 남성은 38.9명, 50~59세 남성은 43.6명, 60~69세 남성은 44.3명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자살률이 증가했다. 반면 여성의 경우 70세 이상(25.7명)을 제외하면 20~30대(40.3명)에서 자살률이 높아 남성과 차이를 보였다.

또한 청소년의 경우 2021

년 자살 사망자 수는 인구 10만 명당 7.1명으로 지난 2019년(5.9명)에 비해 20.3%나 증가했다. 특히 지난 2019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청소년 자살 사망자 수 10만 명당 6.4명인데 비해 한국은 이를 크게 상회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지난 3년간 인구 10만 명당 10~19세 자살 사망자 수는 ▲2019년 5.9명 ▲2020년 6.5명 ▲2021년 7.1명으로 매년 10% 안팎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런 가운데 교회가 자살 사망자와 130만 명에 이르는 자살 유가족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돌봄의 손길을 펼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라이프호프 기독교 자살예방센터(대표 조성돈·라이프호프)가 지난달 28일 개최한 제12차 정기총회와

세미나 및 대담에서 자살 유가족들은 가족의 자살로 고통받는 이들이 교회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살 유가족 심소영 씨는 교회에서 성도들이 아버지 자살에 대해 수군거리는 게 두려워 말도 못꺼내고 가면을 쓰게 됐으며, "교회에서 건강하게 자살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도록 열린 분위기가 형성돼야 한다. 교인들이 자살에 대해 이야기할 때 목회자들은 잘 들어주고 이후 지역사회와 유관기관, 공동체 등의 연계를 통해 지속적인 돌봄이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라이프호프와 두드림 자살예방중앙협의회(회장 김연규), 한국목회상담협회(회장 김기철)는 자살 사안 이후 교인들의 목회적 돌봄을 위한 '긴급목회돌봄 매뉴얼'을 발간해 라이프호프 홈페이지(lifehope.or.kr)를 통해 무료로 다운받아 활용할 수 있게 했다. [GNPNEWS]

* 기사 전문은 QR코드 검색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2019	5.9	19.2	26.9	31.0	33.3	33.7	53.3
2020	6.5	21.7	27.1	29.2	30.5	30.1	47.0
2021	7.1	23.5	27.3	28.2	30.1	28.4	48.7
남자	7.3	27.1	33.4	38.9	43.6	44.3	81.8
여자	6.9	19.6	20.7	17.1	16.3	13.1	25.7

▲ 성 및 연령별 자살률. 출처: 통계청 '국민 삶의 질 2022'



바양산 톨전도사(몽골)

“몽골의 가정을 복음으로 세우는 일에 쓰임받고 싶어요”

몽골은 20세기 초 사회주의 국가로 수립되어 소련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근대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1992년 사회주의를 포기하고 이원집정부제 헌법을 채택하고 정치, 경제

개혁을 단행했다. 이후로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와 지방에 교회가 세워졌고, 한국 선교사들이 몽골로 들어갔다. 선교의 물결이 몽골로 흘러들어가던 그 때, 소녀 바양산 톨이

은혜의 물결에 몸을 실었다. 비록 무너진 가정의 모양으로 아픔을 겪었지만, 지금은 몽골의 무너진 가정을 복음으로 세우고 있는 그녀를 만났다.

● 4면에 계속



마음의 눈을 밝히사 (63)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기도의 가장 중요한 원리가 투영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드리는 기도란, 그의 나라를 이 땅에 오게 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어마어마한 특권의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기도 역시 문제해결, 소원성취가 아닌 철저하게 십자가 복음이 근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다급한 우리의 현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애 낳고 키우고 먹고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버지께서 아시니 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조건 병이 낫게 해달라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병이 생겼을 때는 그 병이 생기게 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병을 통해 우리를 다루기도 하시고, 그 분께 더 가까이 이끌기도 하십니다. 소유에 관한 것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전제 아래 소유가 채워져

야 복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는데 소유만 늘어나면 우리는 타락하고 죄를 짓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기도는 우리가 매순간 당신이 허락하시는 양식으로만 살 수 있는 절대 의존적인 존재라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시옵고”라는 것은 우리는 당신의 용서 없이는 살



일러스트-김경선

수 없는 자라는 고백입니다.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순간도 살 수 없는 나는 가지이고, 주님은 포도나무라는 말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사명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

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비밀은 기도입니다. 복음으로 결론 나고 십자가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주님으로 일하게 하는 일, 그 몫의 일을 절대 빼앗기지 않습니다.

[GNPNEWS]

복음을 영화롭게 하라 (김용의.규장.2017)에서 발췌

복음의 소리 316전화

- 복음이 뭔지 궁금하신가요?
- 믿음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연락주세요.
-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해답이 있습니다.

1670-3160

운영시간 10-22시
상담시간 40분

장난 전화는 삼가주세요

포토뉴스

결혼과 출산에 담긴 행복과 사랑



▲ 모래 더미에서 놀고 있는 몽골의 어린이들. 제공: WMM

따스한 햇살 아래 모래 더미 위에서 흠장난을 치는 아이들의 모습이 사랑스럽다. 그러나 이런 아이들의 모습을 보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우리나라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아이의 수인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0.78명을 기록했다. 역대 최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합계출산율 1.59명에 비하면, 그 절반 수준도 못 미친다.

왜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을까? 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만 20~34세 미혼 여성 중 단 4%만이 여성의 삶에서 '결혼과 출산이 필수'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격적인 것은 여성의 53.2%가 결혼과 출산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결혼과 출산 안에 아름다운 영광을 심어두셨다. 하나님은 아내를 결실한 포도나무로,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고 말씀하신다(시 128:3). 당시 이

스라엘에서 풍성하게 결실한 포도열매는 풍성한 행복이 되었으며, 음식과 약, 등불의 기름을 얻을 수 있는 감람나무(올리브)는 모든 사람의 사랑을 받는 나무였다. 풍성한 행복과 사랑이 결혼과 출산 안에 담겨 있다는 것만 알게 된다면 이 땅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 질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창 1:28) [GNPNEWS]

중국 성도들, 자신을 감시하는 경찰에 웃으며 보살피

중국의 성도들이 자신들을 감시하고 있는 경찰들에게 오히려 웃을 주며 보살피고 있다고 지난달 28일 한국순교자의소리(VOM)가 전했다.

중국 당국으로부터 가혹하게 핍박받고 있는 청두시 '이른비언약교회'의 지도자 가운데 한 명인 다이치차오(Dai Zhichao)는 2022년 9월부터 가택 연금상태에서 감시를 받고 있다. 당국은 그가 집을 나가거나 쓰레기를 내놓거나 심지어 코로나 검사를 받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다이치차오는 항의하거나 법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다. 그는 교회 성도들과 함께, 24시간 교대로 자신을 감시하는 경찰들에게 웃을 주고 보살피며 복음의 증인이 됐다.

한국VOM 현숙 폴리 대표는 "이른비언약교회가 위치한 쓰촨성의 주도 청두의 경찰들은 흑한 속에서 철야로 야외 근무를 서는 와중에도 당국으로부터 방한복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이에 "다이치차오

와 이른비언약교회 성도들이 경찰들에게 따뜻한 물과 옷과 담요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현숙 폴리는 이런 모습은 이른비언약교회뿐 아니라, 중국 정부의 핍박을 받고 있는 다른 교회들에서도 볼 수 있는 모습이라며 "이 성도들은 박해자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한다. 다이치차오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중국 공산당과 함께 하는 자들보다 능력과 권세가 더 크신다는 사실에 대해 주님께 감사하고 있다.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긍휼하심이 함께하기를 기도해달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다이치차오와 이른비언약교회 성도들이 경찰들에게 친절을 베풀었다는 소식을 들은 중국 당국은 해당 경찰들을 다른 근무지로 전속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2021년 5월, 다이치차오와 교회의 지도자 중 한 명이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있는 교인에게 음식을 가져다주려 했을 때 경

찰은 이들에게 주먹질과 발길질을 했지만, 다이치차오는 그 모든 경험을 '훌륭한 영적 훈련'이라고 말한 바 있다. 또한 다이치차오의 가족은 지난 1년 동안 계속 괴롭힘을 당했다. 사복 경찰이 문을 부수며 위협했고 열쇠 구멍에 여러 차례 이물질을 쑤서 넣어 가족들이 구멍에 열쇠를 넣지 못하게 했다. 또 다른 식구들은 외출을 하고, 학교에 가고, 식료품을 사러 갈 수 있지만 다이치차오는 죄수처럼 집에 감금되어 있다.

다이치차오는 이러한 경험을 소셜 미디어를 통해 "하나님께서 저를 강하게 하시고, 이 전쟁을 감당하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한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신다고 믿는다. 앞으로 인생에 훨씬 더 많은 괴롭힘과 방해가 닥쳐오겠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기도한다."고 고백했다. [GNPNEWS]

* 기사 전문은 QR코드 검색



오늘의 열방 다이제스트

긴급한 열방의 상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열방의 교회, 다음세대, 창결하는 죄, 이주민 문제, 영적 전쟁 등의 관점에서 전 세계 언론과 통신원들을 통해 모아진 열방의 소식을 요약, 정리해서 제공합니다. <편집자>

중 온라인 검열로 '예수' '기도' 등 기독교 단어 금지

중국 공산당이 종교 중국화를 강화하면서 중국 메신저 '위챗'의 채팅방에서의 기독교 텍스트 및 오디오에 대한 검열이 증가했다고 차이나에이드가 '2022년 연례 박해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채팅방에서 '예수' '구세주' '아멘' '찬양' 등이 포함된 글의 접근이 제한·금지됐다.

온라인 검열로 기독교를 박해하는 중국 당국이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박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돌이키는 은혜를 주옵소서. 또한 박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이들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사 날로 담대히 복음을 전하며 주 오실 길 예비하는 자들로 세우소서.

이란 여학교, 최소 14개에 이단 독극물 공격

이란의 여학교들이 독극물 공격을 받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최근 전했다. 지난해 11월 말부터 쿰 지역의 한 고등학교에서 18명이 메스꺼움, 두통, 기침, 호흡곤란 등 증세를 보인 것을 시작으로 12개 여학교에서 학생 최소 200명, 교사 1명이 같은 증세를 호소했다. 익명의 한 의사는 "히잡 의문사 반정부 시위대를 위협하는 것이 범행의 목적이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무고한 여학생들과 교사들을 독극물로 공격하며 이를 정당화시키는 사탄의 거짓을 파헤쳐주소서. 여성을 소유물 취급하며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으로 대하지 못하게 하는 악한 이슬람 사상에 경도된 이란의 영혼들을 구원해주시고 복음의 빛으로 회복시켜주소소서.

국방부, '사적 공간 합의된 동성 성관계' 징계 제외

우리나라 국방부가 '사적 공간에서 합의에 의한 동성 성관계'에 대해 징계하지 않겠다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국방부는 사적 공간에서의 행위는 균형법상 추행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군에서는 사적 공간에서의 합의된 성관계를 처벌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에 한국교회언론회는 군대는 상명하복의 조직이므로, 쌍방 합의라 해도 상관에 의한 위압으로 동성 간 성행위를 막을 수 없다며 국방부는 병사들을 동성에 의한 성폭력으로부터 막고 국가 안보를 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방부가 동성에 성관계가 병영 문화를 해치고 동성에 피해자를 양산할 뿐 아니라 국방력을 약화시킨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국가의 안보를 위한 올바른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하옵소서. 또한 평등과 행복추구권이라는 명분으로 죄를 부추기는 사탄의 간계를 파헤쳐주소서. [GNPNEWS]

느헤미야52기도 참여교회 및 단체

2023년 3월 13일 ~ 2023년 4월 1일

3월 13일 ~ 3월 18일 3.13~18(11~17시) ▶경기 군포 / 예수생명교회(권**)010-2735-4869, 3.14(10~12시) ▶경기 수원 / 주님의교회(이**)010-5006-5529, 3.15(10~14시) ▶경기 부천 / 어울림교회(박**)010-2664-6936, 3.16(00~24시) ▶전북 전주 / 사랑하는교회(이**)010-7709-0691, 3.16(20~22시) ▶충남 서산 / 선한목자교회(최**)010-4828-3408, 3.17(10~17시) ▶경기 김포 / 꿈꾸는교회(강**)010-4128-0448, 3.18(09~18시) ▶경남 진주 / 예수로교회(윤**)010-7925-6004, 그 외 7교회 진행중.

3월 20일 ~ 3월 25일 ▶경남 통영 / 두미교회(이**)010-4734-8567, 3.20~24(11~17시) ▶경기 군포 / 예수생명교회(권**)010-2735-4869, 3.21(10~12시) ▶경기 수원 / 주님의교회(이**)010-5006-5529, 3.22(10~14시) ▶경기 부천 / 어울림교회(박**)010-2664-6936, 3.23(00~24시) ▶경기 파주 / 갈릴리교회(최**)010-4828-3408, 3.25(10~17시) ▶경기 김포 / 꿈꾸는교회(강**)010-4128-0448, 그 외 12교회 진행중.

3월 27일 ~ 4월 1일 ▶전남 신안 / 열방선교센터(강**)010-7364-9982, 3.27~29(10~16시) ▶서울 마포 / 금강산병원(이**)010-5248-4147, 3.27~31(11~17시) ▶경기 군포 / 예수생명교회(권**)010-2735-4869, 3.28(10~12시) ▶경기 수원 / 주님의교회(이**)010-5006-5529, 3.29(10~14시) ▶경기 부천 / 어울림교회(박**)010-2664-6936, 3.31(10~17시) ▶경기 김포 / 꿈꾸는교회(강**)010-4128-0448, 그 외 8교회 진행중.

* 더 많은 정보는 기도24365홈페이지(www.prayer24365.org)를 참고해주세요. 느헤미야52기도에 함께 하기를 원하는 분은 사전에 연락하시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느헤미야52기도 문의 ☎ 010-8267-4365)

기획 | 애즈베리 부흥

애즈베리 부흥, 美 전역으로 번져... Z세대 접근 방법도 보여줘

미국 켄터키주에 위치한 애즈베리 대학(Asbury University)에서 시작된 부흥이 미국 전역으로 확산되면서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흥을 향한 열망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 2월 8일 수요일, 휴스 강당(Hughes Auditorium)에 학생들은 일상적으로 수요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였다. 축도 후에 가스펠 합창단은 마지막 합창을 부르기 시작했고, 그 후 쉽게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학생들은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그들은 조용하지만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느끼며, 머물면서 계속 예배를 드렸다. 수백 명의 학생들은 조용히 찬양을 불렀다. 그들은 자신과 이웃과 세상을 위해 죄에 대한 회개와 통회를 표현하고 치유, 온전함, 평화와 정의를 위해 중보하며 진지하게 찬양하며 기도했다. 어떤 학생들은 성경을 읽고 암송했다. 다른 학생들은 팔을 들고 서 있었다. 여러 사람이 소그룹으로 모여 함께 기도했다. 몇몇은 강단 앞 난간에 무릎을 꿇었다. 일부는 옆드려 기도 했고, 다른 일부는 기쁨으로 빛난 얼굴로 서로 이야기를 했다.

이들은 다음 날인 목요일 아침에도 여전히 예배를 드렸다. 오전 중반에는 수백 명이 강당을 다시 채웠다. 목요일 저녁에는 앉을 자리가 없었다. 켄터키 대학교, 컴벌랜드 대학교, 퍼듀 대학교, 인디애나 웨슬리안 대학교, 오하이오 기독교

음에 학생이 이끈 이 예배에 전 세계가 갈망하며 참여해 이것을 경험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지역 언론 켄터키 투데이에 따르면, 지난 14일 현재 22개의 고등교육기관의 학생들이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 이 학교를 방문했다.

애즈베리 대학의 케빈 브라운 총장은 “이곳에 주님의 영이 우리 학생, 교직원, 우리 지역 사회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심장에 파고들었다.”고 지역방송 WKYT 인터뷰에서 말했다.



애즈베리 부흥이 리 대학을 넘어 시더빌, 샘포드까지

지난 13일 미국 리 대학(Lee University) 채플에는 계획된 행사가 없었지만, 점점 더 많은 학생들이 그곳에 자발적으로 모여 찬양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찬란한 영적 순간을 함께 나눴다.

그날 채플의 열기는 뜨거웠다. 사람들은 강단 위에서 기도하고, 많은 사람들이 큰 원을 여러 개 그리며 강단 주변을 행진했다. 일부 학생들은 아침까지 계속 머물렀다. 친구의 권유로 채플에 참석했던 리 대학 신입생인 레이건 필벡은 “이런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며 “성령이 그 곳에서 온전히 역사하고 계셨다.”고 말했다. 48시간이 지난 후에도 학생들과 일부 지역 주민들은 여전히 기도와 예배를 드



▲ 애즈베리 대학교 부흥의 현장. 출처: Alese Linder 페이스북 캡처

삶을 변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워커 총장은 이번 학생들의 부흥으로 학교가 수업을 취소할 계획은 없다며 “하나님은 이 학생들이 수업에 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신다.”고 말했다.

또한 오하이오주 시더빌에 있는 시더빌 대학교와 앨라배마주 버밍엄에 있는 샘포드 대학교 학생들이 사이에서도 자발적인 기도와 예배가 드러졌다.

시더빌 대학의 토마스 화이트 총장은 지난 14일 밤 이 학교에서 부흥에 관한 5개의 짧은 비디오 클립을 공유했다. “오늘 밤 많은 학생들이 약 2시간 동안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간증을 하며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 다시 모였습니다! 오늘 밤 2명의 학생이 더 구원을 받았습니다. 내일 밤 우리는 학생들을 다른 대학에 보내 복음을 전할 것입

니다.”고 말했다. 그는 “머지않아 단상은 학생들로 가득찼다. 우리는 예배 시간이 끝난 후에도 남아 있었다. 나는 다른 학생들이 기도하는 동안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학생들을 보았다. 하나님은 특별한 일을 하고 계셨다.”고 말했다.

화이트 교수에 따르면 14일 아침 예배당에서 인도자가 학생들에게 “강단으로 나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우상을 내려놓으라.”고 초청했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초청에 반응했다. 학생들과 교직원, 그리고 교수진은 그날 저녁 다시 만나기로 했다. 화이트 교수는 이날 저녁 예배가 더 느린 속도로 시작됐으며, “우리는 주기도문으로 기도했다. 우리는 찬양 한 곡을 불렀고, 몇 가지 간증을 들었고, 산상수훈의 팔복으로 기도했다. 처음 30분 동안에는 그 노래 한 곡만 불렀다. 학생들이 음악을 듣고 떠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그렇지 않았다. 그들은 계속 머물렀고, 학생들 숫자는 늘어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음 찬양이 시작될 때 눈물을 흘리며 강단으로 나오는 젊은 여성을 보았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가운데서, 그리고 오른쪽에서 강단으로 나왔다. 나는 병고침과 같은 초자연적인 힘은 없지만 그곳에 주님의 임재를 분명하게 느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일부 학생들은 계속 남아서 기도하고 찬양을 불렀다. 한 젊은 여성은 ‘나는 오늘 밤 구원받았다.’고 고백했다. 이번 주에만 4번의 이러한 신앙고백이 있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덧붙였다. 시더빌 대학 학생들은 지난 15일 밤에 예배를 드리는 대신, 복음 메시지를 가지고 다른 대학에서 나누었다.

또한, 시더빌 대학에서 남쪽으로 불과 177마일 떨어진 앨라배마주 버밍엄 외곽에 위치한 사립 기독교 학교인 샘포드 대학에서도 부흥이 일어났다. 학교 총장의 비서인 케빈 블랙웰은 지난 16일 샘포드 캠퍼스의 레이드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하는 학생과 직원의 페이스북 라이브

비디오 클립을 게시했다. 게시물에서 그는 “지난 저녁에 한 학생이 레이드 예배당에 들어와 피아노로 예배 곡을 부드럽게 연주하기 시작했다. 곧 몇몇 학생이 음악을 듣고 예배당으로 걸어 들어가 이 학생과 함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며 “지난 밤 7시간 넘게 학생들이 레이드 예배당에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고, 간증을 나누고, 성경을 읽었다. 그것은 전적으로 유기적인 학생 주도였다. 오전 2시에 예배당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150~200명의 학생들이 있었다.”고 했다.

애즈베리 부흥이 Z세대 접근 방법을 보여줘

미국 부흥의 불씨를 던졌던 애즈베리 대학의 부흥집회는 지난 26일 마지막 공개 예배로 일단락됐다. 케빈 브라운 애즈베리 대학 총장은 수천 명의 방문객들이 몰려와 이들을 수용할 인프라 부족으로 더 이상 학교에서 지속적인 예배는 드리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이번 부흥이 교회를 떠난 Z세대에 대한 접근법을 보여줬다고 미국 캘리포니아 페퍼다인 대학교 4학년 학생인 로렐 우드가 테니스포럼의 기고문을 통해 밝혔다. 로렐 우드는 애즈베리 부흥에서 가장 흥미로운 것은 소셜 미디어 틱톡(TikTok), 인스타그램(Instagram), 스냅챗(Snapchat) 등을 통해 퍼진 애즈베리의 예배 모임 영상이 미국 전역과 전 세계의 Z세대들을 끌어들이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드는 많은 젊은이들이 기독교적 세계관에 영향을 받지 못하고 자랐으나, 애즈베리의 부흥이 Z세대들은 복음의 필요성을 절실히 인식하고 있는 것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러한 젊은이들을 제자로 삼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며, 이들을 환영할 뿐 아니라, 추수할 일꾼으로 자신을 드러 Z세대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GNPNEWS]

* 기사 전문은 QR코드 검색



▲ 미국 전역에서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 모여든 사람들(좌)과 시더빌 대학 예배 현장. 출처: 유튜브 채널 spectrum news1 캡처 / Cedarville University 페이스북 캡처



대학교, 트란실바니아 대학교, 미드웨이 대학교, 리 대학교, 조지타운 대학교, 마운트 버논 나사렛 대학교에서 많은 학생들이 오기 시작했다. 예배는 금요일에 하루 종일 계속됐고 밤새도록 이어졌다. 토요일 아침에는 빈자리를 찾기가 어려울 정도였으며, 저녁엔 건물 수용 인원을 넘을 만큼 꽉 찼다. 매일 밤 일부 학생들과 다른 사람들은 밤새도록 기도하기 위해 예배당에 머물렀다. 그리고 주일 저녁에도 그 기세가 꺾일 기미는 보이지 않았다.

이 학교 짐 쇼어즈 교수는 폭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곳에는) 솔직한 찬양과 예배밖에 없다. 뱀을 만지는 것 같은 기적도 없다. 처

렀다. 마크 워커 리 대학 총장은 지난 15일, 이 일에 학교 측은 깊이 관여하지 않으려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학생들의 부흥의 에너지는 어떤 사람의 의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채플 문을 밤새 열어두고 불을 끄지 않은 한편, 교직원들로 하여금 당직을 서면서 지키게 했다. 만일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이러한 현상이 지속될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워커 총장은 이 현상을 “학생 주도 철야기도”라고 이름 붙였다. 그는 “부흥은 교회 역사 전반에 걸쳐 일어났다.”며 “이번 부흥은 교회를 넘어 지역 사회로 확장되는 하나님의 지속적인 움직임이며, 이로써 교회와 사람들의

주님의 지혜와 성령의 역사를 위해 계속 기도해주세요. 마지막 영상은 계속 예배를 드리기 위해 남아 있는 학생들의 영상입니다. 제가 밤 11시쯤 떠났을 때 그들은 여전히 거기에 있었습니다.”

화이트 총장은 지난 13일 시더빌 대학의 아침 채플 예배에서 그가 학생들에게 구약 성경의 시편 86편을 공부하도록 인도하는 동안 모든 것이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나는 설교를 이어가기 전에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을 응용하여 기도하고 노래를 부르도록 기획했다. 노래를 하는 동안 기도하기 위해 제일 먼저 단상에 나온 사람은 교직원이었다. 설교가 끝날 때,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심을 알



삶의 풍경을 통해 본 하나님의 은혜

매일 복음 앞에 서는 바양산 톨 전도사 (몽골)

• 1면에 이어

서울 고속터미널 근처 커피숍에서 만난 톨 전도사의 한국말은 유창했다. 한국엔 복음집회 통역차 방문했다고 했다. 그날은 한국에 와 있는 몽골 친구들과 여행을 떠나기로 했다고. 고속버스를 기다리며 대화를 나눴다.

- 언제 어떻게 복음을 듣게 되셨나요?

한국 선교사님을 통해 복음을 듣게 됐어요

- 몽골에 복음이 들어간 초창기에 교회를 다니셨군요. 당시 교회 모습을 기억하세요?

“그때 우리에게 성경책이 없었어요. 몽골에는 번역된 신약 성경만 있었기 때문에 당시 선교사님들이 성경공부도 가르치고 번역도 하면

섬기며 복음의 통로가 되기 시작했다. 그 이후에도 몇 차례 통역을 하다 최근 십수 년 만에 다시 복음 집회에서 통역으로 섬겼다.

- 통역은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나요?

“한국어를 배운지 2년 됐을 때, 목사님을 통해 한 개척교회를 소개받았어요. 한국 목사님께서 개척한 교회였기 때문에 통역자가

요. 저도 한국에서 여러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만나게 됐어요. 그러다 불법체류자였던 한 유부남을 만나게 됐고, 임신을 하게 됐어요. 당시 저는 논문만 남겨 놓은 상태였어요. 힘들었어요. 교회를 다니고 주일에는 교회에서 통역도 했는데, 양심이 찢려서 너무 어려웠어요. 게다가 비자가 연장이 안되면서 몽골

저를 많이 이해해주시고 도와주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저를 도와 주셨어요. 스무 살이 된 아들은 이제 선교사가 되겠다며 의과대학에서 공부 중이에요. 또 주님의 은혜였던 건, 복음학교 내용을 통역하면서 제가 많이 회복됐어요. 아이를 홀로 키우면서 늘 생각했던 것은 하나님도 저를 용서하지 않을 거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복음



©복음기도신문



“

아이를 홀로 키우면서 늘 생각했던 것은 하나님도 저를 용서하지 않을 거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복음의 내용을 통역하면서 그 내용이 제 영혼을 강타했고, 참 자유를 얻게 됐죠.

”

“몽골에 복음이 전파된 지는 34년 됐습니다. 몽골은 공산주의 국가였다가 공산주의가 무너지면서 1990년대부터 외국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저도 그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당시 19살이었어요. 하루는 친구가 좋은 곳이 있다면서 저를 데리고 갔어요. 한국 선교사님이 세우신 교회더군요. 당시 저는 대학 입시에 실패하고 집에 있던 때였어요. 마음이 어려울 때 가게 된 교회가 너무 좋았어요. 그곳에서 친구들도 사귀게 되고, 청년들과 활동하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됐어요. 당시에 복음을 들었지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는 못했어요. 그저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이 좋았죠. 수요일에, 금요일에, 성가대, 중고등부 교사도 하면서 신앙의 훈련을 받게 됐어요.”

서 수고가 많았어요. 당시 몽골에는 한국어 하는 사람들도 거의 없었어요. 다만 몽골은 북한과 교류가 많았기 때문에 국립대학에는 조선어학과만 있었죠. 그나마도 북한어를 하는 사람도 많지 않았고요. 교회를 다닌 지 1년 정도 됐을 때, 목사님이 한국어 강좌를 시작하셨어요. 목사님도 당시에는 몽골어가 능숙하지 않아 한국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때 저는 대학을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2년이 됐을 때, 한국어 강좌는 한국 목사님들이 운영하시는 정식 대학교가 됐어요. 지금의 국제올란바토르대학교의 기초가 됐죠. 저는 1회 졸업생으로 97년도에 졸업했어요.”

그렇게 한국어를 배운 톨 전도사는 2008년에 순회선교단이 몽골에서 가진 복음학교에서 통역으로

필요했는데, 그때 제가 사전도 없고, 설교 용어도 잘 몰라서 번역하는데 애를 먹었어요. 설교문을 미리 받고 단어 찾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저를 공부시키셨던 것 같아요. 당시 목사님께서 기아대책 기구에서 사역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도 대학을 졸업하고 3년 동안 기아대책 기구에서 통역자로 섬겼어요. 이후 한국으로 유학을 오게 됐어요.”

- 한국 생활은 어떠셨어요?

“26살에 한국에 왔어요. 그때 너무 좋았어요. 몽골은 가난했지만, 한국은 다른 세계였어요. 처음에는 너무 좋았지만, 집을 떠나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곧 가족이 보고 싶었죠.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때 몽골 사람들이 한국에 돈을 벌기 위해 많이 몰려오기 시작하면서, 몽골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회에서 통역을 하게 됐

로 돌아가야 했어요. 몽골에 돌아와 출산을 했어요. 감사하게도 가족들이 따뜻하게 보살펴줬어요.”

한국에 유학 오며 어려운 시간을 갖게 됐어요

- 어려운 시간이셨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그 시간을 지나오셨나요?

“2005년도에 참석한 복음학교가

의 내용을 통역하면서 그 내용이 제 영혼을 강타했고, 참 자유를 얻게 됐죠. 아마 그때 복음학교를 하지 않았다면, 지금은 어두운 인생을 살았을 거예요.”

- 복음의 빛 앞에서 회복이 일어났군요. 이후엔 어떤 시간들을 보내셨어요?

“복음학교 이후 새로운 삶이 시



▲ 2008년도 몽골에서 열린 복음학교에서 섬김이들과 함께. 제공: 톨 전도사



▲ 중국의 어느 지역의 가정상담 훈련과정에서 강의하고 있는 톨 전도사(좌)와 훈련과정을 마친 수료자들과 함께. 제공: 톨 전도사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됐어요. 그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복음 앞에 서면서 저의 죄인 된 실체를 알게 됐어요. 복음을 만나기 전에는 제가 그런 죄를 지었다는 것이 스스로 용납되지 않았어요. 착하게 살려고 했기 때문에 저를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었는지 깨닫게 됐죠. 임신을 한 채, 몽골에 들어와서 아이를 혼자 키우겠다고 결정했던 과정들이 많이 힘들었어요. 혼자였기 때문에 힘들었지만, 부모님이

작했어요. 몽골은 무너진 가정이 많이 있었어요. 먼저는 저도 이런 아픔이 있고, 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무엇이든 하고 싶어서 가정사역을 시작하게 됐어요. 지금까지 19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지금은 상담사를 세우는 일을 하고 있어요.”

- 몽골 가정의 일반적인 상황이 어떤가요?

“옛날엔 가정에 대한 개념이 몽골인들에게 올바르게 세워졌던 것

● 5면에 계속



튀르키예 지진... 눈 앞에서 육교가 엇가락처럼 휘청거렸다

지진 피해 지역 10개 주를 순회하면서 필요 물품을 구입해 보내려고 이스탄불을 거쳐 안타키아(안디옥)에서 과악을 마쳤고, 지난 달 19일 이스탄불로 돌아가려고 했다. 튀르키예 부르사에서 온 자원봉사팀의 일손이 턱없이 부족해 도움을 주던 중, 지난달 20일 저녁 8시 지진을 생생하게 목도했다.

담요를 가져오려고 재난대책본부를 가던 중 눈앞에서 갑자기 짝 짝 땅이 갈라지고 육교는 엇가락처럼 휘청거리더니 4군데가 금이 갔다. 땅이 요동치는 바람에 몸은 중심을 잃고 바닥에 내동댕이쳐졌다. 급히 재난본부 광장으로 뛰어 들어갔으나 본부건물 역시 휘청거렸다. 급히 건물에서 나와서 금이 간 다리지만 사력을 다해서 뛰어 가는데 눈앞에서 건물들이 가라앉고 있었다. 건물 마찰음, 붕괴음,

그리고 공포에 질린 사람들이 갈광질광하는 모습과 공포의 소리로 가득찼다. 지구종말이라는 영화의 한 장면 속에 있었다.

카디코이에서 온 7명의 약사들은 의약품을 두고서 피난했고, 도로는 수많은 자동차 피난행렬로 가득찼다. 친척이 없거나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이들은 지진 현장을 떠나지 못하고 남아 있어야만 했다. 4시간 만에 잔해 속에서 구출된 남매가 제2의 지진 공포에 휩싸여 떨고 있는데 차마 그곳을 떠날 수 없었다. 모든 사람들이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그들을 버리고 도피한다면 크리스천에 대해서 잘못 이해할 것 같아 더욱 떠날 수 없었다.

로마에 전염병이 돌아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간 때, 거리에 오물과 악취로 가득하자 크리스천



▲ 튀르키예 지진 현장. 제공: 오 에스라

들이 남모르게 밤마다 검은 옷을 입고서 거리를 청소했다고 한다. 얼마 뒤에는 모든 거리가 깨끗해졌고 악취가 사라졌다. 로마인들은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됐다. 로마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친 크리스천들의 이야기가 내게 큰 영향을 주었다. 후원금이 떨어질 때까지 10개 주를 순회하면서 섬길 계획이다.

한국 구호팀들이 재난지역을 돌아다니며 도와주는 것도 감사하지만, 베이스캠프를 정한 후에 의료팀, 자원봉사팀 등 다양한 팀들이 지속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된다. 특히 기독교 단체가 베이스캠프를 설치하고 여러 단체가 같은 목적을 갖고 도움

을 주며 서로 연합하여 충돌되지 않게 계획을 수립하여 도움을 지속적으로 줄 수 있으면 좋겠다.

안타키아 디프네(Defne)구역 구조 팀장으로 있는 친구 덕분에 금지된 구역에서 진행되는 구조 작업 현장에 갈 수 있었다. 비록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겨우 식사 도우미로 양파와 감자 등 재료 손질을 하고, 쌀감 준비와 대량 식사 배달과 장작을 패서 터키 커피를 제공하는 것이다. 또 비상 모터 점검 후 기름 채우기와 설탕이 떨어지면 물품 창고에 가서 보고하고 채우고, 산디미 같은 오물과 쓰레기를 치우는 일뿐이다. 하지만 그들이 배불리 먹고 있다는 생각에 몸의 피곤을 잊곤 한다. 맨몸뿐이지만 그들

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기뻐다. 지난 2월 24일 저녁 비자 신청 기간이 만료되는 관계로 급히 이스탄불에 왔다. 비자갱신이 완료되는 대로 허락되는 재정으로 물건 구입 후 10개 주를 순회할 계획이다. 지속적인 도움과 사랑의 손길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한다. [GNPNEWS]

튀르키예=오 에스라

* 기사 전문은 QR코드 검색



▲ 튀르키예 구호팀과 함께. 제공: 오 에스라

• 4면에 이어

“몽골 가정의 회복이 필요해요”

같아요. 공산주의 국가였을 때는 부부가 결혼하면 이혼하는 게 어렵고 안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민주주의 국가가 되면서부터는 민주주의를 잘못 인식해서,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것으로 받아들인 것 같아요. 가정에 대한 개념도 무너지면서 사람들이 가정이 있는데도 외도를 하게 되고, 자녀들은 아파하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또 몽골은 아직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외국에 의존을 많이 해요. 한국으로 돈을 벌기 위해 오는 이주민들만 5만 명이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가정을 두고 온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새로운 사람이 생기고, 몽골에 있는 가족들에게도 새로운 사람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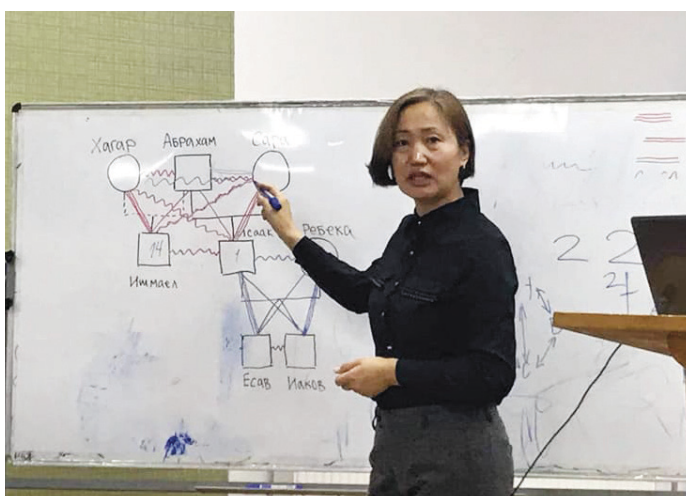
- 어려운 상황이에요. 많은 혼란과 문제들이 발생하겠군요.

“국가적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 고민하면서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 가정에 대한 교육을 시도하며 개혁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어

요. 저도 상담을 하면서 가정에 대해 가르쳐주면 사람들이 잘 적용하고 따라와요. 성경적인 가정이 뭔지 잘 몰랐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사실 몽골 가정에는 좋은 풍습이 있었어요. 부부가 서로를 부를 때, ‘당신’이라는 호칭을 썼어요. 그리고 서로에 대해 욕하지 않았어요. 말이 씨가 된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공산국가가 되면서부터는 이런 좋은 풍습이 사라지고, 지금은 언어폭력이 매우 심해졌어요.”

- 앞으로의 계획과 기도제목을 말씀해주세요.

“지금 저는 몽골의 가정을 세우는 일에 전문적으로 섬기고 싶어서 심리학 석사 과정 중에 있어요. 또, 몽골에 있는 목회자들이나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상담 사역을 하려고 해요. 지금까지 상담 사역을 해오면서, 목회자들나 지도자들에게 상처를 받았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종종 들었어요. 또 목회자들도 나름 어려움과 상



▲ 강연을 하고 있는 톨 전도사. 제공: 톨 전도사

처가 있죠. 이분들의 상처를 어루만질 수 있는 과정들을 만들고 싶어요. 어떤 식으로 할지는 잘 모르지만, 먼저 이 일을 하려면 내가 먼저 준비돼야 하고, 복음 앞에 내가 잘 세워져야 되고, 매일 복음 앞에서 사는 것이 필요해요. 이것 때문에 순회선교단과 협력해서 몽골에서 복음 캠프를 진행하려고 해요. 몽골에 있는 가

정들이 복음 앞에서 회복되고, 거기서 마음에 있는 상처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또, 몽골과 몽골 교회들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만 영화롭게 되고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그날이 빨리 오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GNPNEWS]

Y.K.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일꾼의 뚜렷한 특징, 기도

기도는 한 시간의 식사를 잘 하기 위해 15초의 시간을 할애하여 고개를 숙이는 것이 아니다. 기도는 중차대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할 중차대한 일이다. 하나님의 참된 일꾼들의 뚜렷한 특징 하나가 있다. 그것은 그들이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이다. 그들은 때때로 기도하지 않았다. 그들은 기도가 완전히 체질화될 때까지 항상, 많이 기도했다. 그들은 기도 때문에 그들의 삶이 변하고 다른 사람의 삶이 바뀔 때까지 기도했다. 그들은 기도 때문에 교회의 역사와 시대의 흐름이 달라질 정도까지 기도했다. 기도하기 위해 그들은 바울처럼 영혼의 힘을 쏟아 부었고, 야곱처럼 씨름하여 이겼으며, 그리스도처럼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히 5:7). [GNPNEWS]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 (E.M.바운즈)’에서 발췌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교회 (8)

막힘없이 흘러가는 십자가의 복음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롬 6:12, 13)

천지의 역사를 바꾸려면 사람을 바꿔야 하고 사람을 바꾸려면 그 사람의 중심을 바꿔야 된다. 그 중심을 바꾸는 길은 거듭나는 길밖에 없고 헌신하는 길밖에 없다. 그 일을 가능케 해 주시는 것은 십자가 복음이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충전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다.

그러므로 복음을 들려주지만 하면 성령께서 이 복음의 진리를 우리 영혼 안에 들려지게 하시고 진리가 비취주시는 길을 따라가게 하신다. 주님은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 끝 나요 나

곤 죄였던 이 슬프고도 불가능한 운명의 병든 자아를 깨끗하게 처리해 주셨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의와 율법을 다 이루셨다. 이 사실을 믿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순종해 나아갈 때 기적을 보게 된다.

그러므로 예수 십자가의 복음이면 충분하다. 교회는 이 복음을 생명처럼 붙들고 외쳐야 한다. 자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사모하며 천국이 실체가 된 사람들이 한몸을 이룬 교회가 된다. 죄를 미워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된 생명으로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몸인 교회를 섬긴다. 이것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천국이다. 이런 교회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 민족을 바꿀 수 있다. 아무 말 안 해도 자연히 선교적 존재가 된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고 복음을 믿으면서도 가장 중요한 구원과 내 삶의 주권을 넘겨드렸던 헌신의 분기점이 왜 이렇게 우리 안에 희미한가. 바로 이 모든 일을 가능하도



일러스트=이예린

록 이루어놓으신 것이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다.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실제로 생명으로 부딪히면 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렇게 변화된 성도와 성직자, 교회는 그 능력으로 그리스도께

서 전부를 주장할 수 있다.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막힘없이 흘러가는 교회를 누가 막겠는가. 성도의 숫자나 예배당 건물이나 교단과 상관 없다. 이 십자가 복음을 힘입은 성도와 교회를 통해서

만 오직 복음의 능력이 힘차게 흘러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바꾸고 민족의 흐름을 바꿀 수 있다. (2018년 7월) <계속> [GNPNEWS] 김용의 선교사 (순회선교사. LOG미션 대표)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완성을 위한
느헤미야 기도정보 Ver.9
출간

1년 52주 연속 연쇄·초점집중 기도를 위한 기도정보 모음집

본책 9,000원 | 긴급기도 5,500원 | 세트 72,000원

6종으로 구성된 느헤미야 기도정보 Ver.9는 복음을 주제로 하여, 6가지의 영역을 기도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2023 긴급기도정보

최근 열방에서 일어난 긴급한 기도제목을 담은 2023 긴급기도정보 5종이 새롭게 발간됐습니다! 느헤미야 기도정보 Ver.9와 함께 사용하시면 됩니다.

구입문의 야긴과보아스 032-887-0235 www.jakinnboaz.co.kr

환자의 영육을 돌보실 분 함께 해요!

병원을 주님께 드리며 재개원 예배를 드렸습니다. 선교적 존재로서 예수님의 제자되어 환자의 영육을 돌보실 분! **“함께 해요!”**

모집

- 삼성초대교회 부교역자**
(목사 전도사 선교사 평신도사역자 등 무관)
- 삼성연합의원 원목 겸임
- 간호조무사**
(영양사 자격소지자 우대)

문의

☎ 삼성연합의원·삼성초대교회 | ☎ 010-8528-3217

삼성연합의원
경상북도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820



열방에서 기도로 선한 싸움하며 은혜 누리다

선교훈련을 받으며 마지막 과정으로 아웃리치에 참여하게 됐다. 출발하기 2주 전부터 치열한 영적전쟁이 시작됐다. 목 디스크와 10분도 앉기 힘든 허리 디스크로 인한 통증에, 이것저것 신경 쓸 일이 많아져 피곤이 쌓여갔다. 아웃리치 당일 갑자기 가기 싫은 마음이 들었지만 '이 마음이 결론이 아니지.' 하며 결단하고 집결 장소로 갔다.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며 고통을 이겨내려 했다.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며 내 안에 실제 되기를 기도했다. 편치 않은 복잡한 마음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 설레임과 평안한 마음으로 바뀌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다. 육체의 피곤함과 상관없이 심령 깊은 곳에서 힘이 솟아 나왔다. 루마니아 부카레스트 공항에 도착했다. 그 나라 지

도자들의 자녀들이 동성애 자라는 것과 지도자들이 지쳐있는 상황을 듣게 됐다. 이것 때문에 기도하라고 우리 팀을 루마니아로 부르셨다는 것을 깨닫고 24시간



일러스트=고은선

연속기도하는 느헤미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다. 처음 24시간 기도를 한다고 했을 때 체력적으로 많이 부담이 됐지만 기도의 자리에서 순종하게 하셨다. 말씀 한 구절을 통해 '너는 아

름다운 자야.'라고 말씀하시며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났다. 말씀기도 시간에 한 지체를 통해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도 죄'라는 말을 듣고 용서하지 못했

지.' 하며 십자가를 의지해 새 생명을 가진 자로 여기며 믿음으로 나아갔다. 지체와의 관계를 통해 내 마음에 '시기'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다. 이내 내가 사람의 관계에 집중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다. 내게는 지체를 사랑하는 마음이 절대 없음을 알게 될수록 시선을 주님께 두고 십자가를 의지하게 하셨다. 곧이어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면, 시기로, 사랑 없음으로 반응하지 않는 은혜를 누리게 해주셨다. 내가 주님의 생명으로 살게 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다. 지금까지의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단절케 되는 반복되는 죄 된 내면을 들춰내시고, 비로소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GNPNEWS]

허현미



워크숍
지상중계

이 코너는 GPM(복음과기도미디어)이 운영하는 복음의 소리 316 전화(1670-3160)가 진행한 '신앙 상담 시에 알아 두면 도움이 되는 정신의학' 주제로 열린 상담자 세미나(강사 권서영 정신건강 의학과 전문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편집자>

조현병, 약 복용하면 조절되지만 병식 부족으로 치료 중단하기도

+ 신앙 상담 시 도움이 되는 정신의학 (10)

생물학적인 원인이 추가 되는 정신 질환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대표적인 질환들을 살펴보자. 생물학적인 원인이 큰 정신 질환으로는 조현병이나 망상 장애 그리고 양극성 기분장애, 정신병적 우울증, 강박 장애, 치매나 섬망, 그리고 신경 발달 장애 등이 있다. 그중에서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신병에 대해 알아보자. 많이 알려져 있는 질병으로 조현병이 있다. 조현병의 대표적인 증상은 망상과 환각이다. 현실이 아닌 생각을 진짜라고 믿는 것이 망상이다. 환각은 실제로는 없는 자극을 있는 것처럼 보거나 듣는 등의 감각을 느끼는 증상을 말한다. 이러한 증상들과 함께 기본적으로 사회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기능이 저하되는 질환이다. 옆에서 보기에 얼굴 표정이 단조로워지고, 목표 지향적인 행동이 감소되고, 사회적인 활동에 무관심해지고, 개인 위생 관리가 부족해지는 증상이 함께 나타날 수 있다. 또 대화를 해보면 비논리적이고 언어가 혼란스럽다. 그래서 사고를 논리적으로 하지 못하여 말하고자 하는 초점을 잃고 대화의 일관성, 상관성이 없는 얘기들을 하는 경우가 많다. 조현병은 약을 꾸준히 복용하면 증상이 잘 조절되는 분들이 아주 많다. 그러나 병식이 부족하여 치료를 중단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 그러다 증상이 재발하여 더욱 악화되어 주변 사람들에 의해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다. <계속> [GNPNEWS]



중국, 한 달 새 탈북민 20여 명 체포... 구출 비용 "폭등"



▲ 최근 중국서 탈북민 체포 사건이 급증하고 있다. 출처: 데일리NK 캡처

한반도의 복음통일과 부흥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고통받는 이웃, 북한 주민에 대한 다양한 이슈나 사건, 이야기를 읽고 이 땅을 위해 기도를 요청한다. <편집자> 지난 한 달 새 중국에서 한국으로 가기 위해 동남아 국가로 향하던 탈북민 20여 명이 중국 공안에 체포된 한편, 탈북민 구출비용도 급상승했다고 최근 미국의 소리가 전했다. 코로나19로 장기간 거의 중단됐던 중국 내 탈북민들의 탈출이 재개되면서 체포 횟수도 증가해

지난 한 달 새 적어도 네 차례에 걸쳐 20여 명이 중국 공안에 체포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중국 당국이 코로나 방역 정책을 크게 완화한 지난해 말부터 중국에서 오래 체류하던 탈북 여성들의 이동이 본격화됐기 때문이다. 한편, 탈북민을 구출하기 위한 비용이 1만 불이 넘어섰다. 25년 가까이 탈북민 구출 사역을 해오고 있는 한국 두리하나선교회의 천기원 목사는 코로나 팬데믹을 계기로 판도가 너무 변했다

한국 통일부가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이 위치한 함경북도 길주군 인근 출신 탈북민 대상의 피폭 전수조사를 올해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효정 한국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1차 핵실험 이후 탈북한 길주군과 인근 지역 출신 탈북민 881명을 대상으로 피폭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폭 검사는 탈북민의 방사능 영향과 건강 상태 확인을 위해 일반 건강

검진과 병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 2017년과 2018년 길주군과 인근 지역 출신 탈북민 40명을 대상으로 피폭 검사를 실시했으며, 당시에는 총 9명, 즉 약 22.5%의 검사자들에게서 방사선 피폭 흔적이 검출됐다. 다만 이를 통해서 핵실험에 따른 인과관계나 별도 치료가 필요한 피폭 사례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이 통일부의 입장이다. 앞서 한국의 인권조사기록단체인 전환기정의위킹그룹은 지난 21일 발

표한 '북한 풍계리 핵실험 방사성 물질의 지하수 오염 위험과 영랑 매핑' 보고서에서 풍계리 핵실험장 인근 지역 주민 수십만 명이 방사성 물질 유출과 물을 통한 확산 위험에 처해 있다는 분석

의 차원이 아닌 하나의 큰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했기 때문에 이런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지적했다. [GNPNEWS]

통일부, 풍계리 인근 출신 탈북민 피폭 전수조사 실시



▲ 풍계리 핵실험장 '지하수 오염' 우려... '핵과 인권' 직결. 출처: 유튜브 채널 VOA 캡처

뷰즈 인 아트 Views in Art

지오르지오 데 키리코의 <음유시인>(1960)

시시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18세기 프랑스의 시계장인, 피에르 자케 드로(Pierre Jaquet-Droz)는 빼꾸기시계를 최초로 발명하였다. 그러나, 예술가에게 자케 드로는 초기 형태의 로봇, 곧 오토마타(automata)를 만든 사람으로 더 유명하다. 그가 만든 오토마타는 각각 피아노 연주, 그림 그리기, 글쓰기의 자동기능이 탑재되었다. 이 오토마타는 당대를 넘어 1930년대에 활동한 초현실주의자들에게까지 큰 감명을 주었다. 생명은 없지만 마치 살아 있는 것 같은 로봇을 보노라면 매우 강렬한 감정이 일었는데, 이 섬뜩하고 오싹한 느낌 곧 '언캐니(uncanny)'에 초현실주의자들이 열광하였다. 그들은 어떻게 하면 자기 작품에서도 로봇 같은 강렬한 언캐니를 느끼게 해 줄 수 있을까 고민하였다.

오토마타, 생명은 없지만 마치 살아 있는 것 같은 로봇

이탈리아 초현실주의자 지오르지오 데 키리코(Giorgio de Chirico) 역시 그중 하나였다. 1,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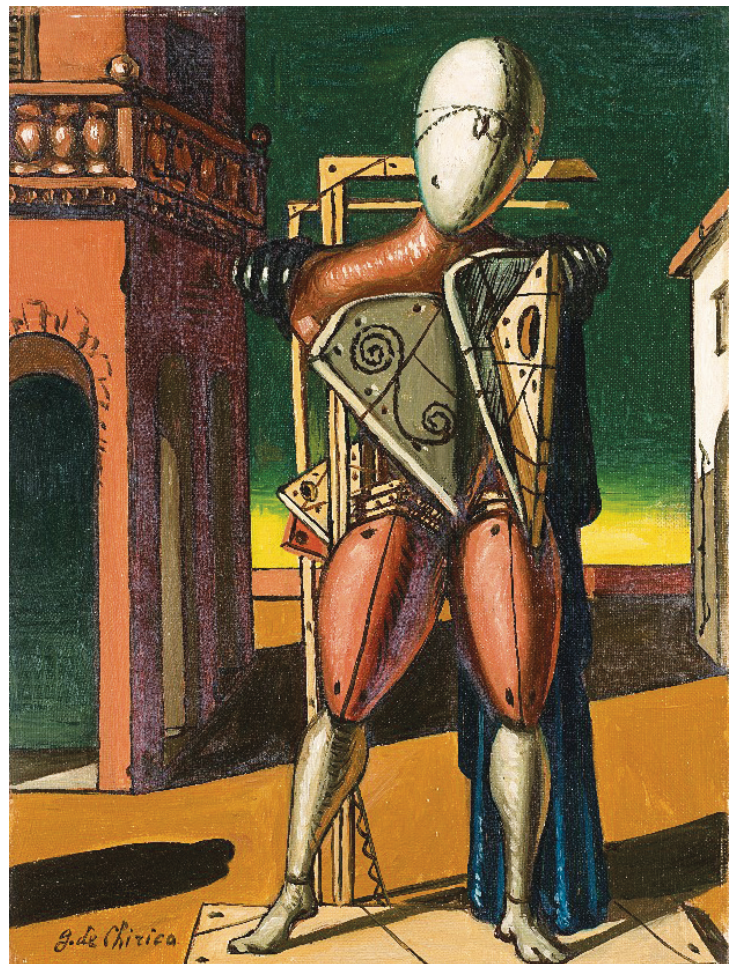
차 세계대전을 지나온 유럽인들이 느낀 감정도 이와 유사한 공포와 불안이었다. 암울한 시대 배경은 데 키리코 같은 초현실주의자를 양산해낸 토양과 같았다. 그의 작품을 보면, 텅 빈 거리 중앙에 로봇이 서 있다. 가슴께 삼각자같이 생긴 물건은 이탈리아 음유시인들이 들었던 작은 하프 같은 악기로 보인다. 작가가 붙인 제목도 'Il trovatore(음유시인)'니, 악기를 연주하며 러브 스토리, 가십, 뉴스를 전해 주던 음유시인 로봇임이 분명하다. 이목구비 없는 얼굴과 질게 드리워진 그림자는 늦은 오후의 생기 없는 우울함을 더하고 있어 로봇이 전하는 뉴스가 그다지 밝지 못함을 깨닫게 한다.

음유시인, 이목구비 없는 얼굴과 질게 드리워진 그림자의 로봇

4차 산업혁명 시대, 로봇은 지난 세기와 달리 눈부신 발전을 이뤘다. 2017년에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독일 비텐베르크의 한 목사가 '축도 로봇'을 제작하였다. 그

는 이 로봇을 통해 이 시대 목회자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질문하려 했다고 의도를 밝혔다. 실제 최근의 인공지능(AI) 기술은 가까운 미래, 목회자들의 역할을 전혀 다르게 변화시킬 것이다. AI가 영적 거장들의 설교를 딥러닝하면,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이 신학적 질문에 답하고, 새로운 설교도 가능한 시대가 왔다. 이들의 생전 모습을 홀로그램으로 구현하여 상황에 맞게 음성의 강약, 표정과 제스처도 가능하다. 그뿐이라, 마틴 루터의 디지털 부활도 가능하다니 순간 섬뜩해진다. 데 키리코 그림처럼 오싹한 현실은 이제 경고음을 울린다. 언제 어디서나 역사적인 설교를 들을 수 있는 AI 상용화 시대에, 하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고 부르신 우리에게 목자로서 무엇이 요구되는가? 나는 로봇 목자와는 무엇이 달라야 할까? [GNPNEWS] 이상윤 미술평론가

그림설명: 지오르지오 데 키리코, <Il Trovatore(음유시인)>, 1960년 추정, 유화, 30x40cm



지면으로 보는 인터넷 복음기도신문

'문화 혁명의 도구' 학생인권조례 폐지해야 다음세대 살린다

이쁜 여자아이가 남자가 되겠다고 유방 절개술까지 받았다. 웃음거리가 아니라 비극이다. 이런 비극이 모여서 나라가 망한다.

청소년기에 남자가 여자에 대해 호기심을 갖고 여자라면 어떻게 생겼을지, 여자가 남자라면 어떻게 생겼을지 생각하는 시기가 있다. 그런 시기에 웃어넘기면서 기다리면 대부분이 그런 생각을 더이상 하지 않게 되고 대부분 정상적으로 살아갈게 된다. 그러다 극히 일부가 다른 성을 추구하는 삶을 지향하기도 한다. 그런데 '인권 활동가'가 미성년자의 호기심의 시기에 '너는 육체적 성별과 다른 내면의 다른 성별 정체성을 갖고 있는 거야.'라고 개입한다. 그때부터 이들이 다른 성별로 살아가도록 법률과 조례에 근거하여 공권력을 동원해서 강요한다면 이것은 아이의 발달에 장애를 초래하는 일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과거에 도무지 못 참아서 성전환 시술을 받고자 하더라도 성인이 된 이후에, 그리고 남자의 경우는 사회적 의무를 다한 이후인 군복무 이후에 가능하게 했다. 이는 삶에 대한 신중함과 합리적인 사고의 결과다. 앞에서 소개한 성전환을 한 사례

는 서구에서 벌어진 일이다. 그러나 한국에서도 학생인권조례니, 아동권리니 하는 주장들이 계속 제기된다면,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다. 현재 한국의 민주당과 정의당이 주장하는 젠더 관련 정책들이 서구의 좌파(사회주의) 정치세력과 정당들이 하는 정책을 추종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서구 좌파(사회주의) 사상의 한 측면을 해체주의라고 한다. 68운동/프랑크푸르트학과/마르크제에 의해서 서구 학생들에게 뿌리내린 주장이다. 그 주장의 핵심은 기성세대가 만든 국가 시스템(질서/체제/전통/윤리)을 모두 해체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해방이고 민주화라고 가르치고 있다. 그것은 결국 부모 세대가 노력해서 형성해 온 나라를 해체하여 사라지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폭력 혁명이 아니라 문화 혁명이라고 한 것이다. 나라의 그 빈 공간에 사회주의 윤리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성인이 되면 프롤레타리아 폭력이 아닌 학교/언론/입법/행정/문화를 통한 사회주의 혁명이 가능하다는 것이 문화 혁명이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런 문화 혁



▲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청구안이 지난 6개월간 필요 서명 수 2만 5000건을 넘겼다. 출처: 유튜브 채널 복음한국TV 캡처

명의 내용을 실천하는 도구가 바로 학생인권조례다. 게다가 그 조례 내용이 지난 50년간 서구에서 실험한 결과 실패라고 판정이 난 철 지난 내용이다. 지금 서구 국가들은 프랑크푸르트 학파가 뿌려놓은 젠더 이데올로기의 폐해를 인정하고, 이전의 모습으로 원대복귀하려고 안간힘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한번 망가진 사회체제를 다시 회복하는 것은 쉽지 않다. 나라가 완전한 절망을 경험해야만 그 바닥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래서 '동성애, 성전환' 문제만 제거한다고 이런 문화 혁명의 뿌리가 제거되는 건 아니다. 인간 사회가 지금까지 유지될 수 있었던 윤리 도덕을 헌신버리듯 내팽개쳐버

린 사상을 제거하지 않는다면 이 문제는 해결되기 어렵다. 수많은 비교육적인 내용은 여전히 살아서 학생들과 나라를 망치는 역할을 지속하게 된다. 이제 우리는 다음세대에게 무엇을 교육할 것인지 그 본질을 심각하게 검토하고 다시 정립해야 한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허락하신 기준을 지키고 준수하는 보수적 가치의 재정립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그동안 좌익 이데올로기에 의해 청산과 적폐의 대상으로 여겨진 보수가 아니라, '가꾸고 지켜나가야 할 보수적 가치의 회복'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대다.

[GNPNEWS] S.Y



구독신청 안내

구독부수는 최소 1명 이상에게 복음을 나누며 전하도록 2부, 20부, 100부 이상 신청받고 있습니다. 구독료는 받지 않습니다.

후원 안내

복음기도신문은 동역자들의 기도와 헌금으로 제작·배포되고 있습니다. 동역하실 분들은 아래 후원계좌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국민은행 : 651001-01-343666 예금주 : 복음과기도미디어

후원자 명단

2023. 2. 8 ~ 2. 28 (가나다 순)

개인

강은진 김경선 김선례 김선희 김숙자 김애심 김영순 김혜신 류영열 박성규 박애리 반혜정 신혜경 안종덕 윤미자 이영선 이은주 이장원 이종훈 이주선 임희순 장근혜 정금자 정옥영 정호진 조명숙 차인순 최근희 최영희 무명

교회 및 단체

갈릴리교회 강서침례교회 고현교회 모리안선교회 목자교회 복음가득한교회 새순교회 서현교회교정사역팀 시흥교회 신한테크 안양그루터기교회 열매교회 오메그교회 주나임교회 참종양다라교회 주만교회 주소망교회 풀뿌리산교회 함안순복음교회 험바교회

"동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기사 제보·구독·헌금·동역 문의는 아래 전화나 이메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 070-5014-0406-8 E-mail: gnpnews@gnmedia.org (31952) 충남 서산시 운산면 원평3길 8 페이스북 www.facebook.com/gospelprayernews

발행인 겸 편집인: 김강호, 인쇄인: 장용호(주아이피디), 2010년 12월 1일 등록번호 충남, 다01355(격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